

# 강진 마량항 해양관광경제 거점 조성 120억 투입

### 강진군-SDN 바다낚시 마스터스 대회 협약...낚시 인프라 대거 확충 마린 콤플렉스·푸소 빌리지·마리나 등 계획 어촌신활력 공모 나서

강진 마량 일대가 해양관광경제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원 강진군수와 최기혁 SDN(주)대표이사,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강진군 바다낚시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출범식과 추진위 위촉식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강진군과 SDN(주)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마량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과 강진군 바다낚시 마스터스대회 개최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마량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이 확정되면 마량항의 풍부한 해양관광자원과 민간투자사업의 연계를 통해 마량항을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해양관광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군은 마린 콤플렉스와 푸소 빌리지, 하버스퀘어, 스카이파크, 피셔리 마리나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SDN(주)이 민간투자 분야에 ▲5t급 낚시 전용선 20척 ▲선장학교 교육프로그램 지원 ▲어선수리지원센터 구축 등에 1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매년 8-12월 마량항 일원에서 개최되는 강진군 바다낚시 마스터스 대회는 강진군 주최, SDN(주) 주관으로 추진되며 대회의 성공 추진을 위한 협약도 맺었다.

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상생발전을 위한 유

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진 마량항은 남해안 바다낚시 메카로 도약 중이다. 연중 낚시가 가능한 지리적 이점과 접근하기가 쉽다. 낚시와 해양관광을 위한 기반시설도 우수하다.

지난해 강진군은 바다낚시어선 10척을 유치·운영했으며 감성돔과 오징어 두 부분으로 나눠 제1회 전국 바다낚시대회를 개최, 약 10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올해는 바다낚시어선 30척을 유치하고 바다낚시 마스터스대회 열어 낚시관광객 2만명 유치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바다낚시 대회를 통해 마량을 바다낚시 메카로 도약시켜 많은 낚시객과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이번 출범식과 협약을 계기로 바다낚시 관련 공격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 강진 마량을 해양관광경제 거점으로 조성, 지역 경제를 더욱 부흥시키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강진군과 SDN(주)이 지난 19일 강진군청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강진원(왼쪽) 강진군수와 최기혁 SDN 대표이사. (강진군 제공)



강진 청자축제장 유채꽃밭을 찾은 어린이들이 유채꽃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강진군 제공)

## 유채꽃 만발한 강진으로 명품 청자 할인 쇼핑 가볼까

### 청자축제 기간 30% 할인 판매 청자박물관 유채꽃밭 손님맞이

강진군이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열리는 '제52회 강진청자축제'를 맞이해 고려청자박물관이 '민간 도예 업체 신제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민간 도예업체 17개 업체가 참여해 23개 작품 69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전통문양을 응용한 식기세트, 청자를 이용한 소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머그컵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들을 볼 수 있으며 각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다.

또 청자 재현품을 생산하는 연구동에서 청자가 만들어지는 상형, 성형, 조각하는 과정을 관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청자축제기간동안 명품 청자를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고려청자박물관에서 제작한 관요 제품은 청자공동전시판매장에서 전 품목 30%, 민간 도예 업체가 제작한 민간요 제품은 명품 청자부스에서 업체별로 최대 30%까지 할인한다.

강진 청자축제장에서 노랑 유채꽃을 만나는 행운도 갖게 됐다.

강진군은 제52회 강진청자축제 개막에 맞춰 유채꽃이 개화했다고 알렸다.

군은 축제장 방문 손님맞이를 위해 지난 가을부터 유채꽃밭을 준비했으며 내륙에서는 가장 먼저 유채꽃을 피워 축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군은 온난한 남부 지역의 따뜻한 이른 봄 분위기와 함께 꽃이 있는 축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축제 개최 때 고려청자박물관의 남쪽 지역에 유채꽃밭을 뿌려 겨울내 관리를 통해 유채 생육을 도왔다.

강진군 관계자는 "조기 개화된 유채꽃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조성해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유채 조기 개화 경험을 살려 제주도를 제외하면 유채꽃이 가장 빨리 피는 관광지로서 매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유채꽃·잔디·편백숲...장성군 10월까지 소규모 마을축제

### 군, 공모사업 5개 축제 최종선정

장성의 봄부터 가을까지 크고 작은 축제들이 손님맞이를 한다.

장성군은 최근 벌인 '소규모 마을축제 공모사업' 결과에 따라 5개 마을축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성을 즐거움으로 물들일 마을축제들은 ▲4월 진원면 산동리 유채꽃축제 ▲5월 장성 황룡강 벚나드리축제 ▲8-9월 삼서면 잔디문화축제 ▲서삼면 축령산 편백숲자락축제 ▲10월 삼남대로 거리 예술한마당 등이 선정됐다.

이들 축제는 마을의 개성과 전통을 반영한 주민 주도 축제로 꾸며진다.

진원면 산동리 일대에는 유채꽃 단지를 만들어 스키 체험, 유채꽃 먹거리 체험, 인증 촬영 등이 진행된다.

오는 5월 상춘객을 맞이하는 황룡강 뱃나드리축제에서는 나룻배를 타고 종아배 경주를 즐길 수 있다. 이곳에서는 나루터가 있던 황룡강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여름철인 8-9월에는 삼서면 잔디문화축제가 관객을 맞는다.

장성군은 전국 잔디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잔디의 고장'으로 알려졌다. 축제장에서는 드넓은 잔디밭에서 야영, 놀이, 체험, 전시행사 등을 즐긴다.



올해 4~10월 5개 마을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축제'가 잇따라 열린다. 지난해 열린 황룡강 가을꽃축제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모습. (장성군 제공)

가을에는 서삼면 축령산 편백숲자락축제가 열린다. 공기 좋은 편백숲에서 숲속 음악회, 치유, 친환경 체험 등을 운영한다.

북이면 사거리 전통시장에서는 10월 중 '삼남대로 거리 예술한마당'이 열린다.

지역 예술인들이 주축을 이뤄 연극, 공연, 공예 전시, 지역 농특산물 판매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장성군은 공모에 선정된 5개 마을축제에 최대

30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완성도 높은 축제 개최를 위한 전문가 상담도 제공한다. 축제 기간에는 주민대표로 현장평기단을 구성해 점검하고 연말 성과보고회도 연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확실화한 마을축제에서 벗어나 지역자원을 활용한 참신한 기획이 돋보인다"며 "주민 주도 소규모 축제의 성공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영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장흥군 지역보건의료 2차년도 시행계획 확정

### 건강 안정망 구축·걷기 운동 독려

장흥군이 올해 주민들의 '걷기 운동'을 독려해 걷기 실천율을 높일 계획이다.

장흥군은 지난 20일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장흥군은 지역보건의료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4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다 함께 누리는 건강백세 장흥'을 내걸었다.

주요 전략 과제에는 ▲보건의료서비스 건강안정망 구축 ▲100세 시대 대응 통합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전인적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등이 담겨 지난 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치매환자·가족을 위한 수업 운영과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 군민의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한 걷기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2차년도인 올해는 보건진료소와 연계한 마을 걷기지도자 양성을 추진해 '걷기 실천율'을 향상할 방침이다.

또 치매 센터와 가족 교실을 운영해 치매 통합관리·정신건강 복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대상을 의료취약지역과 직장인으로 확대해 예방적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주민의 건강 격차를 줄이고, 출산장려정책 홍보를 활성화해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이날 참석 위원들은 장흥군의 2023년 감염병 관리 우수기관 선정과 치매 예방관리 우수기관 선정 등 1차년도 사업 성과에 대해 격려했다.

박옥란 장흥군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신종감염병 확산, 저출산과 고령화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가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남평 지석천, 안창동 영산강 유류부지 일원에 총 63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 지난해 영산강 둔치공원 파크골프장에서 열린 '5회 나주시장배 전남도 파크골프대회'. (나주시 제공)

## 나주시 지석천·안창동에 파크골프장 조성

나주시가 남평을 지석천(36홀)과 안창동 영산강 유류부지(27홀)에 총 63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체 사업 면적은 10만7000여㎡, 사업비는 60억원이다.

나주시는 지난해 8월 실시계획 용역에 들어갔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하천 점용허가를 거쳐 오는 8월 착공, 내년 9월 완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 파크골프 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시의회 현안 보고도 마쳤다고 나주시는 설명했다.

나주시는 전국대회 유치 가능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기존 사이클, 사격, 육상, 스쿼시 등 각종 대회를 개최한 '스포츠 도시' 이미지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파크골프장 건설이 우후죽순 이뤄진 데 따른 환경단체의 반발이 잦아지는 데다가 환경청의 점용 허가 과정도 남아있어 사업 추진에 아직 변수는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남평 지석천과 영산강 일원은 명품 파크골프장에 걸맞은 천혜의 생태 경관을 갖추고 있어 파크골프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무등산국립공원 화순 도원지구 중복규제 해제

###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변경

무등산국립공원에 포함된 화순 도원지구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음식점 등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주민들의 10여 년 숙원이 풀린다.

화순군은 지난 15일 이서면 영평리 도원지구 17만5000㎡의 용도지역을 '공원 마을지구'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한다고 고시했다.

화순군이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용도변경을 추진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원 마을지구는 자연환경보전지역보다 규제가 원만한 등급이지만, 도원지구가 '비도시지역'인 탓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중복 규제를 받아왔다.

환경부 '자연공원법'에서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탐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도시지역 가운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를 제한한다. 이에 따라 도원마을 주민들은 중심사·원효사 지구와 같이 음식점 등을 운영할 방도가 없었다.

지난달 4일 도원마을 주민을 포함한 60명은 도원지구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도원마을에는 이달 현재 20가구 정도 살고 있다. 이 마을은 무등산 규방마을로 가는 길목에 있어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